

## 경찰부패 인식도 연구: 부패충동 · 탐욕 · 금품수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focused on Police corruption

김 택(Kim, Taek)\*

### ABSTRACT

In 1948,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failed to clean up the remains of the torture police and took over the rei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ation's police have suffered as much from the people as they did in its history. First, the police are being prevented from properly enforcing official dutie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police officers are hard to describe in words, such as violent actions against police officers, spitting, throwing away their belongings, and swearing at them at street and police station offices. As the police force that respects human rights is known to be the most revered in the world, foreigners are also said to be resisting the government's exercise of power to police officers. Even the costs of non-commitment in the administration are terrible. Where did this cause come from? Perhaps it is the self-assertive culture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at tries to dilute criticism of the police's past centralized and bureaucratic culture. However, I think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 power of politics started from the power to appoint police officers and wield the right to appoint personnel. He should show a police figure who serves the people rather than being loyal to the regime, but under the protection of political power, the organization seems to be corrupt. It is time to innovate such deep-rooted evils.

After liberation, Rhee left the historical stigma of corruption in public office have been our society. Long long time, Efforts to cut down on corruption but did not succeed. In 2017, the International's Inter-Corruption Index was ranked 51th among 180 countries worldwide. The perception is 54 points. Fifteen years later, the recognition level is still between 40 and 50. As a member of the OECD and the 11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t is considered a problem in terms of national prestige and novelty. The term corruption originally appears in the Bible. The term decomposition, which emerged from the Latin corrumpere, means to "decay, collapse together". As long as human beings are alive, corruption is said to not only go away, but also make the country go to ruin. Corruption sees administrative decisions being swayed by money to delay transactions and to lose fairness for government employees therefore, the study sees the difference between previous researchers 'opinions only and their responses. First, I would like to consider what the public sees in analyzing the causes of police corruption especially, Police greed, police imposture, police payment for bribes Second, the causes of corruption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characteristics of

\* 중원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corruption into individual perception, legal systems, and environmental and cultural factors. Third, it tried to maintain the reliability and consistency of the citizens' perception of corrup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d the questionnaire bas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and compared the findings to test the hypothesis of the subject of the suspect. This study has based on this research necessity and has experimentally analyzed police corruption issues.

Key words: Greed, Imposture, Payment for bribes, Case request

## I. 서론

### 1. 연구목적

경찰은 국가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범죄위험으로부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경찰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과거 김신조 등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시 백척간두의 위기를 지킨 것도, 해방 후 지리산 빨치산을 토벌한 것도 대한민국 경찰이다. 경찰의 역사는 부침과 치욕의 연속이었다. 경찰은 조선시대 포도청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통감부가 경찰역할을 하였다. 1910년 테라우치 통감과 박제순 총리대신이 경찰권을 일본이 위탁한다는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대한제국경찰권은 일제에 넘어갔다. 그 후 일본은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고 고등계형사를 두어 독립투사를 잡아 고문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위협하고 하였다. 어린아이가 울 때 일본순사가 온다면 그쳤다고 할 정도로 그 무시무시한 일본도를 차고 한국 사람을 괴롭혔다. 해방 후 한국을 점령한 미군측은 경무부를 만들어 조병옥을 수장으로 임명하였고 전국경찰을 그 휘하에 두었다.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경찰시스템을 영미 식으로 바꿔 새롭게 구축하려고 했지만 일제앞잡이였던 순사들을 그대로 경찰관으로 유입함으로써 청산의 기회를 놓쳤다. 아직도 경찰문화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미군정은 경찰업무의 축소를 하는 비경찰화 작업, 고문으로 악명높은 고등계를 폐지하고 정보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여자경찰관을 채용하여 여성과 소년범죄를 취급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그러나 1948년 이승만 정부는 고문경찰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들을 일소하지 못하고 국립경찰지휘권을 인수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 역사만큼 국민들로부터 그 수난과 과오를 매몰차게 받고 있다. 먼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받고 있다. 거리나 파출소 경찰서 등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고, 집기를 내던지고, 욕을 하는 등 경찰관을 향한 인권유린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이 한국경찰이라고 소문나서 외국인들도 경찰관에게 공권력행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집행 불응죄 대가도 형편없다. 지

난 1월 대전에서 술 취한 청년이 경찰관에게 뺨을 때리고 급소를 찔렀는데 법원은 벌금 200 만원을 부과했다. 미국에선 경찰관을 폭행하면 징역형에 가한다. 한 예로 미국캘리포니아에서 경찰관을 밟고 밀친 사람에게 징역 7년을 가했다. 일본도 경찰관에게 막대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7개월을 선고했다. 이런 원인은 어디서 비롯됐나? 아마도 경찰의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경찰문화에 대한 비난을 희석하려는 경찰조직의 자조적인 문화도 한 몫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치권력이 경찰을 우습게보고 인사권을 멋대로 휘둘러서 비롯됐다고 본다. 정권에 충성하기보다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상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정치권력의 보호아래 조직이 부패했다고 본다. 이젠 이와 같은 적폐를 혁신해야 한다. 원래 부패라는 용어는 성경에도 나온다. 창세기부터 나타난 부패(corruption)라는 용어는 라틴어 corrumpere에서 유래했는데 ‘썩어 공멸하다, 함께 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 생존하는 한 부패는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나라도 망하게 한다고 한다. 부패는 행정결정이 금전으로 좌우되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공무원의 공정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경찰관에만 설문조사를 한 것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인식도를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부패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이 무엇 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부패의 특성을 개인별인식, 법제도적 측면, 환경이나 조직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부패충동, 탐욕, 금품수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부패충동, 탐욕, 금품수수의 시민의 부패인식도를 고찰하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피조사자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학생과 일반인을 중심으로 설문 항목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입각하여 경찰부패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2. 선행연구의 분석

윤일홍(2009)은 “경찰비리에 대한 경찰관의 견해 연구”에서 경찰조직에 중점을 둔 직업적 사회와 이론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핵심은 경찰비리는 경찰관 개인의 윤리적 조직적 결함보다는 직업적 사회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적 요소와 직장내의 사회화 과정과 경찰비리의 관계를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임지영(2010)의 “경찰관 청렴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는 경찰내부의 청렴도 조사를 통해 경찰관의 인사승진관리의 불신감, 보수 처우문제의 불만, 체계적인 교육부재를 거론하였다. 이상훈(2012)의 “경찰부패의 원인과 방지에 관한 연구”는 경찰부패의 원인과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김상운(2012)은 “경찰의 부패실태와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경찰부패원인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경찰의 공식적 부패원인과 외부영향과의 관계를 비교하였고 부패예방과 반부패 활동을 연구하였다. 문재명(2014)은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방안 연구”에서 부패방지방안으로 이해충돌회피의 제도화를 위하여 청렴윤리교육, 경찰내부의 조직문화와

인사고과제도 개선, 엄중한 처벌을 통한 법적 장치를 제시하였다.

김택(2016)은 경찰부패의 인식도를 연구하였는데 시민과 경찰관의 부패인식도를 실태분석하였다.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의 연구분석을 통해 경찰부패의 유의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남형수(2009)의 경찰공무원 인식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는 경찰부패의 원인과 통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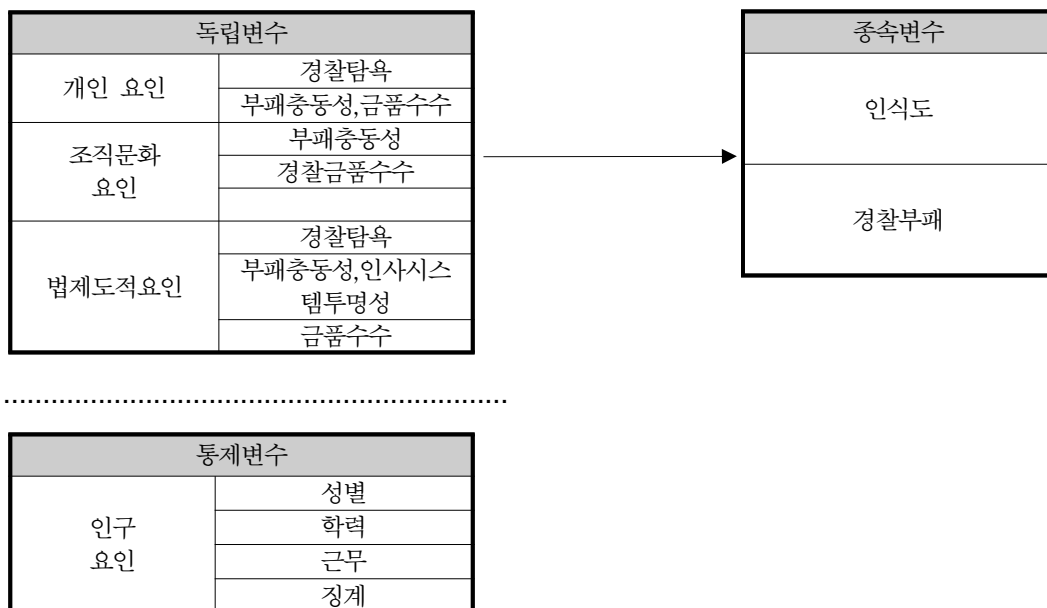
## II. 경찰부패연구의 분석

### 1. 조사 분석 모형과 방법

#### (1) 연구모형

본 논문은 시민의 부패인식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적인 측면, 조직 문화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을 나누어 고찰하였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경찰탐욕 금품수수 충동성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경찰조직문화적 측면에서는 부패충동성, 금품수수를 고찰하였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부패충동성, 금품수수 등을 독립변수로 설계되었다. 종속변수로는 경찰관의 부패인식과 경찰부패가 모형으로 제공되었다.

도표 2-1. 연구분석 틀



##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기존의 경찰부패의 시민인식도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김택, 2016)

[연구문제 1] 경찰부패의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 충동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경찰부패의 경찰탐욕적 요인은 무엇인가 또 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경찰부패의 금품수수 차이는 무엇인가?(김택, 2016)

## (3) 표본추출과 분석방법

서울, 경기도 등 대학생 및 직장인 500여명을 조사하였고 설문조사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실시하였다.

본문의 자료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 인구사회학적 부패요인과 인식도를 검증하고자 T-test를 실시하였다 시민들의 재직기간, 계급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분포

### 1) 인구통계학적 분석

시민 500여명의 설문조사에는 남자가 312명(62.4%)으로 여자 188명(37.6%)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조사분포를 보면 19-29세가 402명(80.4%)로 가장 높다. 그러나 60세 이후는 8명(0.3%)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19-29세, 30-40세, 40-50세, 60세 이후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은 대학생이 399명(79.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공무원이 8명(1.6%)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 회사원, 무직, 상업, 공무원, 농축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380명(76.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 92명(18.4%), 전문대졸 23명(4.6%), 대학원 이상 5명(1.0%) 순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188명(37.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전라도는 11명(2.2%)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경기, 서울, 충청도, 강원, 경상도, 전라도 순으로 분포도의 차이를

보였다. 경찰의 부패인식을 응답한 시민 조사대상자는 남자 대학생이면서 연령이 19-29세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보면 학력은 고졸이 다수를 차지했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김택, 2016:재인용)

## 2. 연구가설 검증

### 가. 개인적 요인

#### (1) 경찰 탐욕

부패의미 기준이 경찰 탐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패충동성이 경찰 탐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금품수수는 경찰부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충동성( $b=-0.18$ ,  $t=-2.55$ ,  $p<0.01$ )은 경찰 탐욕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금품수수는 경찰 탐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패의미 기준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F=2.76$ ,  $p<0.01$ )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공무원이 부패로 엄정하게 징계처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의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표 3-1] 부패의미기준이 경찰 탐욕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2.76	0.15		18.38	0.001***		
가설1-1	탐욕	0.11	0.06	0.14	1.92	0.053*	0.34	2.94
가설1-2	충동성	-0.16	0.06	-0.18	-2.55	0.011**	0.38	2.57
가설1-3	금품수수	-0.01	0.06	-0.01	-0.08	0.933	0.33	3.01
설명력( $R^2$ )		0.016						
조정설명력(Adj. $R^2$ )		0.010						
사례수(N)		500						
F값(F)		2.672						
유의도(p)		0.047**						

\*\*\*  $P<0.011$ , \*\*  $P<0.05$

5,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 (2) 경찰 충동성

부패의미 기준이 경찰 충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동성이 경찰 충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금품수수는 경찰 충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충동성( $b=0.15$ ,  $t=2.22$ ,  $p<.05$ )은 경찰 충동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 $b=-0.15$ ,  $t=-2.05$ ,  $p<.05$ ), 금품수수( $b=-0.26$ ,  $t=-3.56$ ,  $p<.01$ )는 경찰 충동성에 유의한 부(-)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패의미 기준이 경찰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6%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F=15.45$ ,  $p<0.01$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사건청탁으로 어느 정도의 뇌물을 받는 것은 경찰이 충동적으로 경찰부패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절시 돈을 받아 경찰서 운영비로 사용했거나, 명절 때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충동적으로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3-2] 부패의미기준이 경찰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3.51	0.15		22.97	0.000***		
가설1-1	탐욕	-0.12	0.06	-0.15	-2.05	0.040**	0.34	2.94
가설1-2	충동성	0.14	0.06	0.15	2.22	0.027**	0.38	2.57
가설1-3	금품수수	-0.23	0.06	-0.26	-3.56	0.000***	0.33	3.01
설명력( $R^2$ )			0.086					
조정설명력(Adj. $R^2$ )			0.080					
사례수(N)			500					
F값(F)			15.45					
유의도(p)			0.000***					

\*\*\*  $P<0.01$ , \*\*  $P<0.05$ ,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 (3) 경찰 금품수수

부패의미 기준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가 경찰 금품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충동성은 경찰 금품수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금품수수( $b=-0.20$ ,  $t=-2.70$ ,  $p<.01$ )는 경찰 금품수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충동성은 경찰 금품수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패의미 기준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6%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F=11.68$ ,  $p<0.01$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의 부패의미 기준으로 명절 때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의 금품수수를 통한 부패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표 3-3] 부패의미기준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3.76	0.15		24.29	0.000***		
가설1-1	탐욕	-0.05	0.06	-0.06	-0.85	0.393	0.34	2.94
가설1-2	충동성	0.00	0.06	0.00	-0.01	0.998	0.38	2.57
가설1-3	금품수수	-0.18	0.06	-0.20	-2.70	0.007***	0.33	3.01
설명력( $R^2$ )			0.066					
조정설명력(Adj. $R^2$ )			0.061					
사례수(N)			555					
F값(F)			11.681					
유의도(p)			0.000***					

\*\*\*  $P<0.01$ , \*\*  $P<0.05$ ,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 나. 조직 문화적요인

조직 문화적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 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의 청탁과 뇌물제공이 원인이라고 본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경찰부패는 동료의 관용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를 받은 경우 운이 나빠 걸렸다고 본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경찰의 앞선청탁문화와 봐주기 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상납은 권위주



의적이고 계층제적인 경찰조직문화 탓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조직문화적 요인의 하위변인으로 청탁문화, 상납문화, 조직문화, 알선청탁문화, 관료문화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경찰 탐욕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직문화적 요인이 경찰 탐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 조직문화는 경찰 탐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는 경찰 탐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관료문화는 경찰 탐욕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청탁문화( $b=0.18$ ,  $t=4.06$ ,  $p<.01$ )와 조직문화( $b=0.23$ ,  $t=5.37$ ,  $p<.01$ )는 경찰 탐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 $b=-0.16$ ,  $t=-3.29$ ,  $p<.01$ )는 경찰 탐욕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 탐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3.8%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F=15.80$ ,  $p<0.01$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의 경찰 탐욕은 시민들이나 업자가 청탁과 뇌물제공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 받는 경우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 탐욕은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가 부패를 조장하기 때문에 경찰 탐욕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3-4]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 탐욕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2.38	0.26		8.99	0.000***		
가설2-2-1	청탁문화	0.19	0.04	0.18	4.06	0.000***	0.86	1.15
가설2-2-2	상납문화	-0.19	0.05	-0.16	-3.29	0.001***	0.73	1.36
가설2-2-3	조직문화	0.19	0.03	0.23	5.37	0.000***	0.93	1.07
가설2-2-4	알선청탁문화	-0.10	0.05	-0.09	-1.89	0.059*	0.75	1.31
가설2-2-5	관료문화	0.01	0.05	0.01	0.30	0.761	0.77	1.29
설명력( $R^2$ )			0.138					
조정설명력(Adj. $R^2$ )			0.130					
사례수(N)			500					
F값(F)			15.809					
유의도(p)			0.000***					

\*\*\*  $P<0.01$ , \*\*  $P<0.05$ ,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 (1) 경찰 충동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조직 문화적 요인의 하위변인으로 청탁문화, 상납문화, 조직문화, 알선청탁문화, 관료문화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경찰 충동성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직문화적 요인이 경찰 충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 조직문화는 경찰 충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는 경찰 충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관료문화는 경찰 충동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청탁문화( $b=0.11$ ,  $t=2.52$ ,  $p<.05$ )와 조직문화( $b=0.13$ ,  $t=2.94$ ,  $p<.01$ )는 경찰 충동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 $b=-0.13$ ,  $t=-2.73$ ,  $p<.01$ )는 경찰 충동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4%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F=6.67$ ,  $p<0.01$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의 경찰 충동성은 시민들이나 업자가 청탁과 뇌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 받는 경우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 충동성은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가 부패를 조장하기 때문에 경찰 충동성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3-5]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2.77	0.29		9.50	0.000***		
가설2-2-1	청탁문화	0.13	0.05	0.11	2.52	0.012**	0.86	1.15
가설2-2-2	상납문화	-0.17	0.06	-0.13	-2.73	0.007***	0.73	1.36
가설2-2-3	조직문화	0.11	0.04	0.13	2.94	0.003***	0.93	1.07
가설2-2-4	알선청탁문화	-0.10	0.06	-0.08	-1.73	0.083*	0.75	1.31
가설2-2-5	관료문화	0.07	0.06	0.05	1.18	0.238	0.77	1.29
설명력( $R^2$ )			0.064					
조정설명력(Adj. $R^2$ )			0.054					
사례수(N)			500					
F값(F)			6.674					
유의도(p)			0.000***					

\*\*\*  $P<0.01$ , \*\*  $P<0.05$ ,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 (2) 경찰 금품수수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는 경찰 금품수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는 경찰 금품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알선청탁문화와 관료문화는 경찰 금품수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조직문화( $b=0.10$ ,  $t=2.28$ ,  $p<.05$ )는 경찰 금품수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 $b=-0.12$ ,  $t=-2.49$ ,  $p<.01$ )는 경찰 금품수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F=4.19$ ,  $p<0.01$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 금품수수는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 받는 경우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 금품수수는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가 부패를 조장하기 때문에 경찰 금품수수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3-6]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3.02	0.29		10.23	0.000***		
가설2-2-1	청탁문화	0.07	0.05	0.06	1.42	0.155	0.86	1.15
가설2-2-2	상납문화	-0.16	0.06	-0.12	-2.49	0.013**	0.73	1.36
가설2-2-3	조직문화	0.09	0.04	0.10	2.28	0.023**	0.93	1.07
가설2-2-4	알선청탁문화	-0.09	0.06	-0.07	-1.45	0.146	0.75	1.31
가설2-2-5	관료문화	0.09	0.06	0.07	1.55	0.121	0.77	1.29
설명력( $R^2$ )			0.041					
조정설명력(Adj. $R^2$ )			0.031					
사례수(N)			500					
F값(F)			4.191					
유의도(p)			0.000***					

\*\*\*  $P<0.01$ , \*\*  $P<0.05$ ,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 다. 법제도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과 경찰 탐욕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법제도적 처벌만이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경찰은 수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과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경찰부패는 경찰관들의 징계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인사가 불투명하고 보수가 적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법제도적 요인의 하위변인으로 부패통제가능성, 재량권,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경찰 탐욕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 (1) 경찰 탐욕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탐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패통제가능성, 재량권,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은 경찰 탐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부패통제가능성( $b=0.05$ ,  $t=1.05$ ,  $p<.01$ ), 재량권( $b=-0.04$ ,  $t=-0.86$ ,  $p<.01$ )으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도 경찰 충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1%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F=1.23$ ,  $p<0.01$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부패는 엄중한 처벌만이 부패를 줄일 수 있거나, 경찰은 수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과 재량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 충동성 높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부패통제가능성, 재량권,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 등의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 탐욕과 관련성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7]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탐욕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2.88	0.23		12.49	0.000***		
가설2-3-1	부패통제가능성	0.05	0.05	0.05	1.05	0.294	0.67	1.47

\*\*\* P<0.01, \*\* P<0.05,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충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패통제가능성, 재량권은 경찰 충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은 경찰 충동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부패통제가능성( $b=-0.16$ ,  $t=-3.07$ ,  $p<.01$ ), 재량권( $b=-0.14$ ,  $t=-2.74$ ,  $p<.01$ )은 재량권( $b=-0.14$ ,  $t=-2.74$ ,  $p<.01$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은 경찰 충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9%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F=6.40$ ,  $p<0.01$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8]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3.43	0.23		14.41	0.000***		
가설2-3-1	부패통제가능성	-0.18	0.05	-0.16	-3.07	0.002***	0.67	1.47
가설2-3-2	재량권	-0.16	0.06	-0.14	-2.74	0.006***	0.70	1.42
가설2-3-3	경찰처벌수준	0.10	0.06	0.09	1.77	0.077*	0.69	1.43
가설2-3-4	인사투명성	0.05	0.04	0.05	1.19	0.231	0.85	1.17
설명력(R <sup>2</sup> )			0.049					

조정설명력(Adj. R <sup>2</sup> )	0.042
사례수(N)	500
F값(F)	6.408
유의도(p)	0.000***

\*\*\* P<0.01, \*\* P<0.05,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 (3) 경찰 금품수수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량권은 경찰 금품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패통제가능성,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은 경찰 금품수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재량권( $b=-0.17$ ,  $t=-3.29$ ,  $p<.01$ )은 경찰 금품수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부패통제가능성,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은 경찰 금품수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4%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F=4.31$ ,  $p<0.01$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은 수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과 재량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 금품수수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표 3-9]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 요인 (VIF)
	상수항	3.43	0.24		14.29	0.000***		
가설2-3-1	부패통제가능성	-0.07	0.05	-0.06	-1.28	0.199	0.67	1.47
가설2-3-2	재량권	-0.20	0.06	-0.17	-3.29	0.001***	0.70	1.42
가설2-3-3	경찰처벌수준	0.09	0.06	0.07	1.48	0.139	0.69	1.43
가설2-3-4	인사투명성	0.05	0.04	0.05	1.12	0.263	0.85	1.17
설명력(R <sup>2</sup> )		0.034						
조정설명력(Adj. R <sup>2</sup> )		0.026						
사례수(N)		500						
F값(F)		4.314						
유의도(p)		0.002***						

\*\*\* P<0.01, \*\* P<0.05, \* P<0.10

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0.10 이상, 분산팽창요인(VIF)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거되었음.

## Ⅳ. 결론 및 제언

### 1. 조사분석 결과의 논의

본 연구 분석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와 시민들의 경찰인식도 및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경찰부패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연구에서는 부패의미기준에서 “명절 때 어느 정도 받아야 부패행위로 본다.”라는 가설이 채택됐다. 부패의미 기준과 경찰 탐욕 간의 관련성에서는 “사건청탁으로 어느 정도 주어야 뇌물행위로 본다.”라는 가설만 채택됐다. 경찰 충동성에서는 “명절 시 돈을 받아 경찰서 운영비를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를 부패행위로 생각한다.”라는 가설, “사건청탁으로 어느 정도 주어야 뇌물행위로 본다.”라는 가설, “명절 때 어느 정도 받아야 부패행위로 본다.”라는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부패의미 기준과 경찰 금품수수 간의 관련성에서는 “명절 때 어느 정도 받아야 부패행위로 본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부패인식에서는 “경찰관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을 많이 받으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가설이 채택됐다. 경찰간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개인적 탐욕이라고 본다.”라는 가설과 “공무원이 부패로 엄정하게 징계처벌 받지 않는 경우 부패가 많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됐다. 경찰부패 요인과 경찰 충동성 연구에서는 “경찰관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을 많이 받으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가설이 채택됐다. 경찰부패 요인과 경찰 금품수수 연구에서는 “경찰관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을 많이 받으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가설이 채택됐다.

### 2. 조직문화적 요인

조직 문화적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의 청탁과 뇌물제공이 원인이라고 본다.”라는 가설, “경찰부패는 동료의 관용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가설,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를 받은 경우 윤이 나빠 걸렸다고 본다.”라는 가설, “경찰의 알선청탁문화와 봐주기 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라는 가설, “상납은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제적인 경찰조직문화 탓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직 문화적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의 청탁과 뇌물제공이 원인이라고 본다.”라는 가설, “경찰부패는 동료의 관용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가설,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를 받은 경우 윤이 나빠 걸렸다고 본다.”라는 가설이 채택됐다.

조직 문화적 요인과 경찰 충동성 에서는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의 청탁과 뇌물제 공이 원인이라고 본다.”라는 가설, “경찰부패는 동료의 관용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 는 가설,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를 받은 경우 윤이 나빠 걸렸다고 본다.”라는 가설이 채택됐 다. 조직 문화적 요인과 경찰 금품수수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동료의 관용적인 문화가 있 기 때문이다.”라는 가설과 “공무원이 부패로 징계를 받은 경우 윤이 나빠 걸렸다고 본다.”라 는 가설이 채택됐다.

### 3. 법제도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과 경찰부패 인식 간의 연구에서는 “경찰은 수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 과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가설이 채택됐다. 법제도적 요인과 경찰 탐욕 간의 연 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엄중한 처벌만이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라는 가설, “경찰은 수 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과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가설, “경찰부패는 경찰관들 의 징계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라는 가설, “인사가 불투명하고 보수가 적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라는 가설 모두 기각되었다. 제도적 요인과 경찰 충동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엄중한 처벌만이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라는 가설, “경찰은 수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과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 한다.”라는 가설이 채택됐다. 법제도적 요인과 경찰 금품수수 간의 연구에서는 “경찰은 수 사나 단속업무 수행상 뇌물과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가설만 채택됐다.

##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가상시나리오 설문을 활용하여 경찰 부패요인을 측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연구로서 현실에서의 대응이 다를 수 있고 응답자는 응답지에 제시된 답변 중에 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비교학적 연구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부패인식을 통해 경찰부패방지 방안을 만들어 중 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찰청렴방안은 중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처 방으로 나누어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단기적 방안으로는 경찰공무원의 부패인식과 조직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렴 교육이나 윤리적 처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조사에서도 경찰관의 탐욕이 경찰 금품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듯이 경찰 개개인의 청렴교육과 윤리 관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바른 가치관, 공정한 가치관, 투명한 가치관, 법적 책임감, 도덕적 책임감을 형성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중요하다. 그동안 윤리교 육이나 청렴교육이 일회성에 그친다든지 이벤트성 반부패 청렴대회나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는 것으로 평가 됐다. 과거의 한국경찰 윤리교육은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본다. 경찰윤리관 형성은 국가관이나 경찰혼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기적 방안으로서 경찰에 잔존하고 있는 인사나 승진상의 비리를 척결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정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찰관들의 불만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의 투명성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의 운용이야말로 경찰관의 사기진작과 직무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인사나 승진의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시민들의 경찰서비스도 저하될게 분명하다고 본다. 경찰관 개개인이 승진에 누락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도덕성은 감소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의 평가 공개, 주관적 평가의 축소, 사후 평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승진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외부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 방안으로는 법제도적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재량권 축소나 법적인 오해 소지 측면을 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찰은 이제 정의로운 민주경찰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학자 코헨과 펠드버그(Jhon Kleinig, 1996)는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법집행의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파적인 경찰수사나 친구나 동료에게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 공익을 위한 공권력 행사, 부패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국민권익위원회(2016), 「정책 자료」
- 경찰청(2012-15), 「경찰백서」
- 경찰청(2012), 경찰채신위원회, 「경찰채신권고안」, 30쪽
- 김상운(2012), “경찰의 부패실태와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7권 제3호:93-112
- 김택(2016), “경찰공무원 부패의 시민인식도에 관한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1권 3호:159-182쪽, 한국부패학회
- 김택(2016), “경찰공무원 부패의 시민인식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학박사학위논문, 2016, 2월
- 김택(2017), “경찰학의 이해”, 『박영사』, 32쪽
- 남형수(2009), “경찰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2009
- 동아일보(2010), 2010년.4.19, 1996.1.16.
- 문재명(2014), “경찰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회피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학박사학위논문 2014.2: 1-3
- 유종해·김택(2010), 「행정의 윤리」, 박영사, 187쪽
- 윤일홍(2009), “경찰비리에 대한 경찰관의 견해 연구”, 『장기유학 훈련 연구보고서』,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6
- 이상훈(2012), “경찰부패의 원인과 방지에 관한 연구”, 『국가법 연구』, 제8집2호: 189-211쪽, 한국국가법학회
- 임지영(2010), “경찰관 청렴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조사 및 경찰관 설문결과 비교”, 용인대 경찰학석사논문, 8:8-24쪽
- 조철옥(2012), 『경찰윤리학』, 대영문화사, 126쪽
- 허경미(2016), 『경찰학개론』, 박영사, 40쪽
- 허경미(2007), “정치적 관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전략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호

### 2. 외국문헌

- Bayley, David H.,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a Developing Nations,” *Western Political Quality*, vol.12, no.4(December 1966)
- Edwin J Delattre, *Character and Cops: Ethics in Policing*, The AEI press, 1996, pp.71
- G. Myrdal, *Asian Drama* (N.Y. : Pantheon Books), 1968, pp.200-210.
- Jhon Kleinig, *The Ethics of Policing*, Cambridge University, 1996, pp.165-166

투고일자 : 2018. 02. 28

수정일자 : 2018. 03. 28

게재일자 : 2018. 03. 31

## &lt;국문초록&gt;

## 경찰부패 인식도 연구: 부패충동·탐욕·금품수수를 중심으로

김 택

1948년 이승만 정부는 고문경찰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들을 일소하지 못하고 국립경찰지휘권을 인수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 역사만큼 국민들로부터 그 수난과 과오를 매몰차게 받고 있다. 먼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받고 있다. 거리나 파출소 경찰서 등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고, 집기를 내던지고, 욕을 하는 등 경찰관을 향한 인권유린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이 한국경찰이라고 소문나서 외국인들도 경찰관에게 공권력행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집행 불응죄 대가도 형편없다. 이런 원인은 어디서 비롯됐나? 아마도 경찰의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경찰문화에 대한 비난을 회색하려는 경찰조직의 자조적인 문화도 한 몫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치권력이 경찰을 우습게보고 인사권을 멋대로 휘둘러서 비롯됐다고 본다. 정권에 충성하기보다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상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정치권력의 보호아래 조직이 부패했다고 본다. 이젠 이와 같은 적폐를 혁신해야 한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는 공직 부패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문재인정부는 법과 정책을 통해 반부패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부패는 줄어들 수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부패 인식도는 180개국 중 51번째로 부패인식점수는 54점이다.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0점 50점대에 머물고 있다. 11번째 경제대국으로서 국가적위신과 체면문제라고 본다. 부패는 성경에도 등장한다. 원래 부패라는 용어는 라틴어 *corrumpere*에서 나왔는데 몰락하다, 함께 파멸하다라는 뜻이다. 인간이 사는 동안 부패는 살아있고 나라를 쪼먹는다고 볼 수 있다. 부패는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공직자들의 정의를 상실하게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경찰부패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부패의 특성을 개인별인식, 법제도적 측면, 환경이나 조직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부패충동, 탐욕, 금품수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부패충동, 탐욕, 금품수수의 시민의 부패인식도를 고찰하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피조사자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학생과 일반인을 중심으로 설문 항목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입각하여 경찰부패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경찰탐욕, 경찰충동성, 경찰금품수수, 사건청탁

K C I